

## 부산 사하구 감천동 문화마을

부산 사하구 감천2동 태극도 마을,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 소리가 넘나들던 골목 여기저기 이방인들의 발걸음이 늘어난 것은 최근 들어서의 일이다. 공공미술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인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시작된 마을의 변화들이 그 시작이었다. 젊은 예술가들과 주민이 함께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주제로 마을에 공공미술의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했다.



부산 감천동 ‘태극도 마을’은 6.25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거처로 태극교도들이 모여 들어와 자리를 잡은 마을이다. 이곳은 산복도로를 사이에 두고 판잣집의 구조와 슬레이트 지붕이 조화롭게 어울려 마치 장난감 블록이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독특한 풍광을 연출하고 있다. ‘레고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다닥다닥 붙여진 작은 집들과 그들이 가진 저마다의 개성, 그리고 집과 집들이 만들어 내는 골목이 아주 매력적인 곳이다. 판잣집의 구조 위에 얹은 슬레이트 지붕은 알록달록한 저마다의 색을 가진 옷을 입고 있다. 다양한 색으로 칠해진 작은 집들은 다닥다닥 빼곡히 붙어 있는 집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회색으로 물들어 삭막해질 수 있는 공간이 색이라는 옷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태극도 마을의 작고 낮은 지붕을 가진 집들 사이로는 넓은 마당이나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만한 담은 없다. 집과 집을 이어주는 약간의 공간과 그들이 거닐며 소통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좁은 골목과 계단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들에게 높은 담과 넓은 마당은 사치일 뿐일지도 모른다. 좁은 골목과 계단, 한 뼘도 채 되어 보이지 않는 작은 공간이 주는 의미와 가치는 넓은 마당, 높은 담보다 훨씬 크다. 그 속에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과 소박한 생활의 많은 이야기가 넘쳐난다.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 담소 나누는 주민, 따뜻한 햇볕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고양이,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골목골목에서 마주하고 있노라면 저절로 미소가 띠어질 만큼 사랑과 따뜻함이 넘친다. 작은 집과 골목들 사이에 햇살을 받으며 걸려 있는 빨래와 싱싱하게 심겨 있는 소박한 채소들은 한데 어우러져 진솔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마을의 일상과 삶을 깨뜨리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예상치 못했던 마을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조형물과 예술작품들이 삶과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해 즐거운 문화와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정다운 이야기들을 이곳 사람들의 일상 속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천히 함께 호흡할 수 있어 더욱 아름답다.



## < 감천동의 유래 >

감천(甘川)의 옛 이름은 감내(甘內)이다. 감은 [검]에서 온 것이며, [검]은 신(神)이란 뜻이다. 천(川)은 [내]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다른 유래로는 물이 좋아서 감천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內]를 적어 감내(甘內)또는 감래(甘來)라고 하였고, 다내리(多內里:多大안쪽 마을)로 부르기도 했다. 반달고개는 감천동과 아미동을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왕래가 잦았던 고개로 감천 2동에서 서구 아미동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천마산과 아미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 부산 사하구 감천2동 태극도 마을의 전경

## < 감천동의 특성 >

감천동은 한국전쟁 당시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 근현대사의 흔적과 기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산복도로는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계기와 함께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문화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옥녀봉에서 천마산에 이르는 산자락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독특한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는 감천동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보여주고 있다. 뒷 집을 가리지 않게 지어진 주택의 미덕이 살아있는 감천동은 현대의 도시인들에게 예전의 추억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을 부비고 사는 민족 문화의 원형과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다.